

“우리 사회에 봉사와 나눔문화 확산”

글 박지훈 아산재단 복지사업팀



아산상의 원천 중 하나인 아산효행대상 시상식은 1992년에 처음 열렸다

2014년 추석이 막 지난 9월 말, 전북 익산의 외곽에 자리한 한센인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돼지축사의 분노냄새가 밀려들었다. 아산상 후보자에 대한 현장실사를 위해 아산상 심사위원장과 함께 마을 초입의 삼산의원을 두 번째로 방문한 길이지만 축사 냄새는 여전히 당혹스러웠다.

“여기서 계속 조용히 진료하다 죽는 게 꿈이에요”라며 아산상 수상을 한사코 고사하던 김신기(86) · 손신실(80) 노의사 부부는 만나절에 거쳐 30여년 동안 한센인 곁을 지켜온 이야기를 심사위원장과 나누었다. 그리고 부부 의사는 지난해 아산상 의료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올해부터 시상내용 대폭 개선

정주영 아산재단 설립자는 1989년부터 매년 연말에 현대그룹 계동사옥 강당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모범직원 500여 명을 초청해 ‘위로의 밤’을 개최했다. 아산재단의 아산상은 이 행사에서 시설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공로상’을 시상하면서 시작되었다.

1992년에는 경로효친(敬老孝親)의 실천과 확산에 기여한 사람들을 포상하기 위해 ‘아산 효행대상’을 추가 제정하였고, 1999년 ‘간호 부문’을 신설해 간호사들을 시상하였으며, 2000년 의사를 대상으로 한 ‘진료 부문’을 추가하였다. 2001년에는 아산사회



아산상은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을 대상으로 '모범직원 공로상'을 수여하면서 비롯되었다(왼쪽). 2014년 아산상 의료봉사상 수상자인 김신기·손신실 부부(오른쪽)

복지상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2004년 아산상으로 명칭을 변경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아산상은 시대 흐름에 맞춰 시상 내용을 조정하면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봉사과 나눔·효행을 실천하여 사회의 귀감이 된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시상해왔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봉사과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서 국내최고 권위의 상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재단 설립자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고, 봉사과 나눔·가족사랑 등 아산상의 취지와 성격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시상제도를 대폭 개선하였다.

먼저 시상 부문에서는 공적 내용이 유사한 자원봉사상과 재능나눔상, 청년봉사상을 자원봉사상으로 합쳤고, 다문화가정상을 효행·가족상에 통합하였다. 시상 인원도 기존의 5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였다. 대신 부문별 상금 1천만 원을 3천만 원으로 증액하여 아산상(3억 원), 의료봉사상·사회봉사상·특별상(각 1억 원)과의 상금 격차를 줄였다.

6단계 거치는 까다로운 심사

개선책으로 수상자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총 상금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번 변화에 대해서는 수상자들의 자긍심이 더욱 높아지고, 공적이 뛰어난 후보자가 지속적으로 발굴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아산상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이에 걸맞은 수상자를 찾아내는 일은 갈수록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아산재단 사무처에서는 매년 전국의 행정기관과 대학교, 사회복지단체 등 7천여 단체에 수상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사회복지협의회 등 30여 단체의 홈페이지에 시상 공고를 게시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론사 기사와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미담 사례를 찾고, 역대 아산상

수상자와 재단 자문위원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있다.

심사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다. 심사는 요건심사와 서류심사, 현지 실태조사, 본심사, 현장실사, 최종심사 등 총 6단계를 거친다. 요건심사는 재단 사무처에서 추천요강에 명시된 자격과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이고, 서류심사는 다각적 관점에서 수상 후보자를 평가할 수 있도록 부문별 심사위원 3명이 복수 심사를 진행한다.

현지실태조사는 후보자 본인과 관련단체, 수혜자를 직접 만나 공적 사실과 주변인의 평가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재단 사무처에서 3인 1조로 진행한다.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사람을 만나 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후보자 공적의 허위나 과장 등을 걸러낼 수 있다.

본심사는 심사위원 전원회의로 진행하며, 신청서류와 현지 실태조사 보고서 등을 검토하고, 토론 등을 거쳐 부문별 예비 수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아산상과 의료봉사상, 사회봉사상, 특별상 등 주요 부문은 심사위원회에서 추가 현장실사를 진행하여 최종 평가를 한다.

마지막으로 아산상 운영위원회가 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부문별 수상 후보자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쳐 수상자를 확정한다.

그동안 아산상은 755명의 수상자를 배출하였고, 오는 11월 말에 제27회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아산상 수상자 대부분은 공적을 과시하기보다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채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며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분들이다.

일찍이 재단 설립자는 "어려운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돕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인간의 예의"라고 천명하였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사회에 나눔과 섬김의 씨앗을 뿌리면서 '아산 정신'을 구현하는 분들이 있는 한 아산상은 계속될 것이다. 🌱